노선 조정·요금 인상·준공영제 개편 등 넘을 산 많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단위:억원·광주시 제공)

구분	07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증감 (07년 대비)
운송원가	1,362	2,058	2,144	2,386	2,430	2,467	81%
운송수입	1,166	896	932	1,066	1,053	1,065	△9%
적자분 재정지원 (비율)	196 (14.4%)	1,162 (56.5%)	1,212 (56.5%)	1,380 (57.8%)	1,377 (56.7%)	1,402 (55.2%))	615%

광주시가 21일 광주시청에서 첫 대중교통 혁신회의를 열어 광주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앞 시내 버스 정류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 혁신회의

준공영제 지원 196억→1402억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요금 중장기 조정 방안도 마련
간선급행버스체계추진도 관심

광주시가 일명 '예산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의 개편을 위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선 조정, 버스요금 인상,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방안, 버스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가 처음 개최한 대중교통혁신 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준공영제와 노선개편이다.

지난 6월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결렬로 인한 파업이 계기가 됐지만, 매년 10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구조를 개편이 우선 되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중교통 혁신회의 재정혁신 분과는 광주 시내버스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인 준공영제도 존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민영제에서 발생했던 서비스 중단과 교통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해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매워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첫 해인 2007년에는 196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입 첫해에 비해 615%가 늘어난 1402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광주시가 사후정산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는 사전정산제나 목표관리제 등의 방안 등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또 사측의 경영 효율화 방안과 노선 최적화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감차와 노선 통합 등의 방식을 두고 버스업계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재정혁신 분과는 운송원가 항목별 합리적 산정기준과 재정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준공영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고민한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저렴한 광주지역 시내 버스 요금의 중장기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또 다른 개편의 축인 노선 혁신분과에서는 장거리·운행기피 노선을 개선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버스의 적정배차 간격을 설정하고 도심권 내 회차지 확보 방안 등과 안전 운행기준도 제정한다.

버스업계에서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벽지마을 여객수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DRT(수용응답형 버스)시범도입도 논의된다. 광주시는 DRT의 경우에는 공영제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보고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추진도 노선확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BRT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2027년 중반부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현재 준공영제 방식으로 유지할지, 광주시교통공사에서 공영제로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BRT 노선과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노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노사상생 분과는 당장 2025년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간의 임단협의 주요사항을 7~8월 내에 해결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임금이 타시도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과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버스회차지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버스행정 분과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시 친절도 향상방안과 난폭운전에 대한 모니터링·패널티 부과, 친절 버스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한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시내버스 노선은 102개(지선65·간선31·급행간선6)로 총 1000대(지선375대, 간선 486대, 급행간선13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1일 시내버스가 8402회 운영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계엄 옹호에 일제강제동원 부정까지 강준욱 비서관, 끝없는 '망언 시리즈'

시민모임 "당장 사퇴하라"

대통령실은 21일 비상계엄을 옹호 의혹의 중심에 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의 저서 내용을 대통령실이 알고 임명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를 묻자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며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지자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 스스로 대통령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했다"며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찬양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비서관은 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를 찬미한 인사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참모진으로 기용됐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15일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관은 저서 내용이 논란이 되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으나 이날 여권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영애 전 여가부장관 "강선우 후보자가 예산 삭감 갑질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과 관련한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본인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려고 제게 요청했는데, 센터 설치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확보하기 어려워서 해당 지역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을 (관장하는) 이화여대 총장과 의논했다"며 "총장은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티오(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다. 막 개원한 병원의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이 주변에 보냈다는 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임위 위원과 장관 간에 어떤 상황이 오갔는지는 다양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부분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